

녹지지구→준공업지구→이젠 아파트촌 만든다고? “평화롭던 터전 사라질라” 마을주민들 분통

황룡강 주변 난개발 논란...광산구 지로·영천·용동마을 가보니

“돈도 없는데 아파트 들어서면 쫓겨날 수밖에...” 한숨만 가득
“수백년 이어온 마을 역사·특성 무시한 채 개발에만 눈독” 비난
장록습지 인근 한쪽선 개발·한쪽선 보전...엇박자 행정 질타도

“수백 년 동안 살던 마을에서 사람조차 살지 못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아파트 촌으로 만들겠다고 겁 이해가 안되네요.”

17일 오전 찾아간 광주시 광산구 지로·영천·용동 마을 일대는 평화로웠다. 광주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광주일보 11월 16일 1면) 을 추진한다는 평등산업단지과 황룡강 장록습지 사이 바로 그 마을이다.

하지만 마을을 돌아다니다 만난 주민들을 통해서 최근 광주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이 마을에 퍼지면서 마을이 술렁인다는 얘기를 접할 수 있었다.

나이는 주민들은 아파트촌 개발로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대를 이으며 살아온 마을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섰다.

광주시가 공고한 지역(139만 5553㎡)에는 수백년 된 3개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282세대 477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로(128세대 217명), 영천(55세대 95명), 용동마을(99세대 165명)로, 마을 이름도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정해진 그대로다.

지로 마을은 조선시대 선조때 우의정을 지낸 오겸(吳謙)이 낙향해 살았던 마을.용동 마을은 삼한시대 군장사회의 치소(治所·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가 돼 백제를 거쳐 조선 중기까지 북룡현(伏龍縣)의 치소를 유지했던 마을이라고 했다.

■평등 황룡강 주변 개발사업 예정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이지만 아파트촌이 생긴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얼굴엔 두려움도 느껴졌다.

4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고 있던 김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이 들린다”면서 “돈도 없는데 아파트가 생겨나면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주민은 “한때 녹지지구였던 마을이 준공업지역(1998년)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됐는데, 이젠 아파트촌을 만들겠다고 마을의 수백년 역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



17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지족동 마을 전경.

을의 역사와 특성을 살려 개발하려는 고민 대신, 쉽고 빠르게만 진행하려는 안일한 개발 행정에 대한 비판이다.

이준경 지족동 통장은 “마을 주민들은 느닷없이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면서 소음·악취에 30년 간 시달려왔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단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심 곳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모자라 국가습지 지정 추진 중인 장록습지 인근까지 아파트로 채운다는 데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샛)도 살고 있으며 장록습지와 육상을 연결하는 연결공간으로, 생태계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중인 곳이라는 점에서 한쪽에서는 개발, 다른 쪽에서는 습지 보전을 진행하는 등 ‘엇박자’ 행정을 펼친다는 말도 나온다.

경사도가 심한 탓에 아파트 단지 건설 과정에서 토지를 심하게 깎아내는 등 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은 “광주시가 이 지역에 실시한 단계적 용도변경만 봐도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제시한 계획은 전략 사업 육성을 내세운 아파트개발 사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광산경찰 “휴~” 진단검사 전원 음성 우려했던 치안공백 없어

광주광산경찰서 경찰관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서 치안공백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산경찰 소속 A경위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570번 환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은 A경위가 근무한 청사 3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 있는 보안계·여성청소년계 등 일부 부서 업무도 일시 중단했다. 또 17일 오전 A경위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117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충효동 인근 식당에서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인 광주 561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A경위와 식사를 함께했던 직원들은 3일 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일부 중단됐던 업무는 18일부터 재개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적장애 학생에 고추냉이 먹인 전직 교사 집행유예 2년 선고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전 서울 모 학교 교사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과 9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각각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반 숟가락 정도 떠서 강제로 먹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주식 갈등’ 아버지 폭행·감금 아들 집행유예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7시간 넘게 감금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17일 중준속감금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이 선처 의사를 밝힌 점, 사기 범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1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아버지 B(68)씨 집에서 아버지를 때리고 손과 발을 묶고 같은 날 오후

10시25분까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주식 처분을 요구했으며 B씨가 “다음 날 아침에 주식을 팔아 주겠다”고 하자 “내일 아침 주식을 팔 때까지 잡고 있겠다”며 B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아내 명의로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B씨는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 A씨 아내가 계약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됐고 A씨는 이같은 점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돈 문제로 부친을 상대로 이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패륜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학생 팔짱 낀 교사, 품위 손상 인정 안돼...감봉 부당”

학생들의 팔짱을 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교사에게 학교측의 감봉 징계는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학교측의 A씨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018년 일부 여학생들의 팔짱을 끼며 불쾌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봉 처분을 내린 학교측의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학교측은 해당 사건의 재심을 요청해 기각된 이후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청의 경징계(감봉 1개월) 요구를 반영한 처분을 내렸고 학생의 팔짱을 끼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

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비위행위 시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학교측도 해당 학생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교사로서 품위가 손상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광주지법이 해당 사건과 관련, ‘추행행위로 단정짓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도 반영했다. 재판부는 또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피해자가 처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없어 피해학생의 진술 요지만으로 법원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수현 전 대변인 명예훼손 재판 강용석 변호사측 혐의 부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변인에게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박 전 대변인은 (대변인 자리가 아닌) 충남지사 후보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강 변호사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지난해 기소됐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구)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구)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75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